

완도 괴물은 '츄파카브라'?

언론·네티즌 관심 폭발



“완도 생일도에 괴물이 있다”는 보도(본보 24일자 6면)에 “사실이나”는 문의가 빗발쳤다.

이날 광주일보사에는 취재 연락처 등을 묻는 중앙 방송사 등 국내 언론사의 전화가 쇄도했고, 네티즌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 괴물이 염소 등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전설 속의 ‘츄파카브라’(사진)일 가능성이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는 ‘완도괴물’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완도에서 출현한 괴물로 지목된 ‘츄파카브라’도 10위 안에 랭크됐다.

1980년대 ‘우에르토리코’에서는 가축들이 목에 구멍이 난 채 죽음을 맞는 괴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축들의 시체에는 혈액과 체액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가 ‘흡혈 외계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이 괴물에게 ‘염소의 피를 빨다’(goat sucker)는 뜻을 담은 ‘츄파카브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디스커버리 채널 ‘The World Strangest UFO Stories’는 이 괴물의 정체에 대해 목격자들의 증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완도 괴물도 이 괴물과 유사점이 많다. 지난 23일 완도군 생일면 서성리 백운산(해발 482m) 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흑염소도 흡혈귀에 피를 빨린 듯 뼈째 말라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네티즌 ‘zd3’는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지만 혹시 가능성아...”라고 댓글을 달았고, ‘bgud1007’은 “정말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mypoacari’는 “(츄파카브라)는 피를 빨아먹는 동물이지, 몸통을 파헤쳐 놓지는 않는다”면서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밖에 ‘ajksolid’는 “현장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됐다. 사람들이 잡아먹고 발뺌하는 것”이라며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식용유 바른 ‘암체 무화과’ 판매

일부 농가, 조기 숙성시켜 1개월 빨리 출하

자연산에 비해 과육 질 떨어지고 값도 비싸



요즘 광주~목포간 도로에서 팔고 있는 무화과 중에는 식용유를 바른 조기 숙성시킨 ‘암체 무화과’가 섞여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전남도 내 일부 무화과(無花果) 농가들이 덜 익은 무화과에 ‘식용유’를 바른 방법으로 출하시기를 앞당겨 비싼 값에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편법으로 재배된 무화과는 과육이 제대로 익지 않는다. 친환경적이지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영암군과 무화과 농가들에 따르면, 노지(露地)에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출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과일이 어느 정도 크기로 커지고 끝이 밟그레해지면 식용유에 물을 섞어 발라준다. 이렇게 하면 무화과는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기 재배된 무화과는 하우스에서 재배한 무화과와 섞여 광주~목포 간 도로변 등에서 3.75kg(1관·약 50개) 당 3만 원에 팔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폭설로 인한 냉해가 심해 가격이 크게 올라 이달 초 지난해보다 2배 비싼 6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생산 시기도 지난해에 비해 3주 정도 늦춰졌다. 보통 하우스 무화과는 7월 초부터 시장에 출하되지만, 올해는 8월 상순부터 시작했다. 노지 무화과는 이보다 한 달이 늦은 9월 초에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올해 ‘식용유 무화과’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전히 익어 끝이 십자가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자연산 무화과.

문제는 ‘식용유 무화과’가 정상적으로 재배한 무화과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것.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식용유가 일종의 호르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좋아보일 수 있으나 과육은 정상 재배한 무화과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방식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농업 교육 때마다 이 같은 방식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에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무화과는 수분 함량이 높아(약 89%)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지면 2

식용유의 역할?

일종의 성장 촉진제

“식용유는 일종의 ‘성장촉진제’ 역할을 한다.”

전덕영 전남대학교 바이오식품센터 소장은 “사람이 성장 호르몬을 맞아 키가 크는 것과 비슷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소장은 무화과가 익기 전, 익으면 벌어지는 열매 끝 부분에 식용유를 발라놓으면 시간이 지나 부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휘발성인 ‘에틸렌’ 가스가 방출된다고 했다. ‘에틸렌’은 식물 호르몬의 일종으로, 일정 부분은 식물에서도 자연적으로 방출된다. 씨앗의 싹을 틔게 하기도 하고, 잎을 떨어뜨리거나 열매를 잘 익게 한다. 외부에서 자극을 해서 과일이 빨리 익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전 소장은 그러나 “인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소금 섭취’ 남자는 라면·여자는 생선

한국인 WHO 권장량의 2.7배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라면에서, 여자는 생선구이에서 각각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손숙미 교수는 2005년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전국 20~59세 성인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저염섭취 영양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성인의 일일 평균 소금 섭취량은 13.5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5g의 2.7배에 달했다. 이 중 남자의 소금 섭취량은 14.9g으로 여자 12.2g에 비해 높았다. 또한 남자는 라면, 여자는 생선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측정된 김치와 된장의 염도를 보면 경상도 지역 김치와 된장이 각각 3%와 14.5%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전라도는 김치가 2.3%, 된장이 12.1%로 경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광양경찰은 24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독한 점수에 따라 미인증 상품권을 제공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량양=김충호기자 chkim@kwangju.co.kr

도박 프로그램 공급업체 대표 조사

광주 북부경찰, 성인PC방 수십 군데 제공 혐의

광주 북부경찰은 24일 사행성 PC방용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PC방 본사 수십 곳에 팔아 넘긴 혐의(도박개장 방조 등)로 도박용 프로그램 개발업체 A사 대표 김모(4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게임 제작에 관여한 프로그래머 신모(31)씨 등 11명과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맹 PC방을 모집한 PC방 본사 대표이사 김모(32)씨 등 3명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유통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프로그램 소스가 담긴 CD 97장과 계약서 50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4월20일

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사무실에서 개발한 ‘마루 게임’ 등 PC방용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 1개당 3천만~1억원 가량을 받고 ‘햄피온’ 등 전국 50여개 PC방 본사에 공급, 약 21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PC방 본사들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조금씩 개량, 각 PC방 본사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매망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프로그램을 구입한 본사가 모집한 가맹 PC방이 각 회사별로 수십 곳, 전체 개별 가맹점이 1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성관계 동영상 합박 자작극 ‘달미’



○~유부녀와 정을 통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다른 사람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속인 20대가 경찰에 달미.

○~2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된 고모(27)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북구 중흥동 자신의 원룸에서 이모(32·주부·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전화를 방한 책꽂이에 몰래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누군가가 자신과 이씨를 협박한 것처럼 편지를 보낸 것.

○~고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이씨와 지난 4월부터 성관계를 맺었으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협박 편지에 이씨의 생활에 관해 너무 자세히 적는 바람에 들뜬.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제일모직 outlet 판매원구 시거리

• 제일모직 본사 직출상품만 취급 **60~40% 할인**

• 직출품 1벌 가격으로 2벌 혜택

• 100% 면, 100% 울, 100% 울, 면카우튼, 면카, 스포츠웨어, 신발, 속옷, 티셔츠, 면바지, T-SHIRT, 니트

제일모직 outlet

(株) 행복출판사

행복출판사 대표이사 김모(45)씨는 “행복출판사는 출판계의 선진기업으로, 최고의 책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문학에서 출판계의 선진기업으로, 최고의 책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출판사 대표이사 김모(45)씨

행복출판사 (061) 527-3388